

4월 수출 광주·전남 양극화...냉장고만 관세 직격탄

광주 17.8% ↑ 차·반도체 호조세 전남 13.1% ↓ 주력품 큰 폭 부진 25% 관세품 철강판·자동차 선방

지난 4월 광주·전남 수출이 주력 산업 양극화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수출 감소가 우려됐던 미국 관세 부과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판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냉장고는 직격탄을 맞았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수출액은 16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실적이 빛났다.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30.1% 상승했던 디젤차량이 감소세로 전환(-74.9%)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57.0%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이 9.0% 늘어난 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최대 수요처인 싱가포르행 수출이 101.2% 증가하는 등 전달(3월) 감소세에서 56.4%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외 반도체 국가별 수출 증가율은 대만 27.8%, 말레이시아 49.0%, 중국 49.8%, 필리핀 70.8% 등이다.

자동차부품은 전년비 49.1% 증가한 3,000만 달러를 기록, 광주 전체 수출 비중에서 2% 대에 진입했다.

국가별 비중 33.9%를 차지하는 미국에 2.4% 증가한 5억 6,0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싱가포르는 무려 100.8% 상승했다.

캐나다(40.9%)와 중국(18.3%), 대만(7.7%), 말레이시아(46.8%) 등 상위 6위까지 자동차·반도체 영향에 모두 증가세다.

4월 광주 수입은 22.9% 증가한 6억 6,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 9,000만 달러 흑자다.

같은기간 전남 수출은 33억 9,000만 달러다. 감소율은 -13.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품목별로 비중 28.1%를 차지하는 석유제품이 -21.4% 하락세를 보였다. 합성수지와 그간 호조세던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분야도 각각 26.6%·1.5%씩 감소했다.

기초유분(-22.8%)과 기타석유화학제품(-29.1%), 합성고무(-19.8%) 등 대부분 산업 수출이 부진했다.

국가별로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13.9% 감소율을 보였다. 이어 △미국(-8.9%) △일본(-29.8%) 등 상위 3개 국이 모두 하락 폭이 컸다.

4위국인 호주는 경우·휘발유 수출 증가에 27.7%, 몰타와 프랑스는 화물선 수출 증가에 크게 상승했다.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 자동차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전기차·내연기관차 선호가 줄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은 19.6% 줄었으나 광주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약진으로 폭탄을 피했다. 다만 보편관세 10%에 해당하는 냉장고는 프리미엄 제품이 주력인 광주 특성상 44.7% 감소하는 등 타격이 컸다.

전남 2위 수출 산업인 철강판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1.8%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홍승현 기자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행복나눔봉사단과 함께 광주본부 금요직거래장에서 '이심점심 중식지원사업'을 펼쳤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고향주부모임, 주먹밥 200개 전달

'이심점심 중식지원사업'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최근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회장 윤정숙) 행복나눔봉사단과 함께 광주본부 금요직거래장에서 '이심점심 중식지원사업'을 펼쳤다.

이심점심 중식지원사업은 농협과 고향주부모임이 매년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무더운 여름철이나 영농철 등 홀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고령·취약계층 농가에 점심 도시락이나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지역 농촌의 고령·취약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단은 우리쌀로 만든 주먹밥 200개를 정성껏 포장해 광주 관내 농촌마을 경로당에 전달하며, 따뜻한 점심 한 끼와 함께 이웃의 정을 나눴다.

이현호 본부장은 "고령·취약농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나눔 실천을 앞으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전기요금 전자청구서 신청하면 1800만원 상당 경품"

한전, 친환경 청구문화 확산

전기요금 납부편의 향상 제공

한국전력이 종이 없는 친환경 청구문화 확산과 전기요금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 청구서 이용 확대에 나선다.

한전은 오는 7월 20일까지 전자 청구서로 전환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최신으로 변경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800만 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종이 청구서를 받던 고객이 전자 청구서로 신규 전환하거나, 종이 청구서 QR코드를 통해 사용자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기존 전자 청구서 전환고객도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추첨을 통해 총 420명에게 냉장고, 로봇청소기, 전기밥솥, 국민관광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이 제공된다.

전자 청구서 신청은 종이 청구서 QR코드 외에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한전ON 앱,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100% 디지털 전력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광주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다후와 업무협약

중장년 채용 애로사항 청취

적극적 교류로 고용 활성화

광주경총여성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가 최근 다후와 중장년 고용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다후는 자동차부품제조 및 건물종합관리 서비스 기업으로 40세이상 중장년 채용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구인정보를 공개하고, 중장년내일센터에서는 구인요건에 맞는 구직자 맞춤형 알선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중장년 고용활성화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광주경총 중장년내일센터는 협약 후 기업대표 및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중장년 채용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센터와 적극적인 교류·연계를 통해 경험있는 중장년 채용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이상 중장년 대상 취업알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 기관으로 광주 고용복지+센터와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해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기업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GICON 'AI 스토리 창작 사업' 경쟁률 12:1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역특화 소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창의적인 스토리를 발굴·육성하는 'AI 기술 기반 스토리 창작(각색) 지원' 공모 마감 결과 경쟁률 12:1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와 GICON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2025 광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일환이다. 확장 가능한 자유 주제와 광주 지역 이야기를 소재로 AI 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스토리 개발하는 게 목표다.

'AI 기술 기반 스토리 창작 및 각색 지원' 공모에 전국에서 132편의 작품이 접수돼 12:1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획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창작 지원 73편, 각색 지원 59편이 접수됐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야구, 광주극장, 고려인 마을, 지역 미식 등

의 소재를 통해 광주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GICON은 광주형 스토리 개발에 그치지 않고 영상화, 더 나아가 관련 상품 개발·판매·유통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AI 기술을 스토리 창작 및 각색 과정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AI는 아이디어 확장, 플롯 구조 분석 등 집필 전반에서 창작 도구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향후 영상화 가능성이 높은 작품으로 발전시키고 콘텐츠 산업에 적합한 형태로 작품을 정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강력한 원천 스토리에서 출발한다"며 "지역성을 살린 스토리에 작가의 상상력과 AI 기술을 융합해 더 풍부하고 실험적인 콘텐츠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순환상은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 환경신기술 제455호 검증 189호

- 건설오니의 탈수·건조시설
- ▶ 친환경마크 인증
- 순환골재(보조기충용) - 순환아스콘(리바콘)
-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 ▶ 순환골재 품질인증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 가족친화기업
- ▶ 23년도 중소기업부 CSR 10대 우수기업 선정

공장 · 주차장 · 신설도로 등 포장공사 저렴한 가격

- ▶ 상온순환아스콘 생산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 골재석별 파쇄업
- 쇄석골재 판매
- ▶ 성토·복토 공사업
- ▶ 포장 공사업
- ▶ 비계구조물 철거공사업
-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 석면조사·분석해체 전문업
- ▶ 조경식재업
- ▶ 폐목·임목 재활용업(톱밥생산)
- ▶ 기계설비 공사업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천지환경(주)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로 1685-15
TEL. 061-323-1882 / FAX. 061-323-5881

홍농조경건설(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69
TEL. 061-323-3239 / FAX. 061-323-5881

